

$$(\sqrt{x})' = \frac{1}{2\sqrt{x}}$$

$$\frac{(x-m)^2}{2\sigma^2})$$

$$U = \int_a^b \pi f^2(x)$$

$$\in \mathbb{N} \mid \forall n > N \mid |x_n - a| < \epsilon$$

$$f(x) = \frac{e^x - e^{-x}}{2}$$





cos d

$$S = 4\pi R^2$$

$$V = \frac{4}{3} \pi R^3$$

$$(e^x)' = e^x$$

$\pi = 3,14$

$$\int_a^b f(x)$$

$$y = |x - 2|$$

$\ln(a-b)$

$$x = \operatorname{Re}\{e^{ix}\}$$

$x^1 = 1$

$$\sum_{k=0}^{\infty} \sum_{l=0}^{\infty} \frac{f^{(k)}(a)}{k!} \frac{f^{(l)}(a)}{l!} (x-a)^{k+l}$$

과학과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1

과학자들은 우주의 광대함과 복잡성에 대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다. 그들 중 다수는 우주를 더 깊이 탐구할수록, 그 모든 웅장함의 배후에는 지극히 지혜로우신 창조주께서 계신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진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는 오래전 선지자 다윗에게도 분명했던 사실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의 역사를 나타내나이다. 날은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도다.” 시편 19:1,2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으니... 헛되이 지으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거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이사야 45:18).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하게 하려고 땅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땅의 주된 거주자가 인간이 될 것임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며[히브리어로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세기 1:28). 그러나 이 유산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신성한 율법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이에 실패했고,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한 구속을 마련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22). 인간은 불순종에서 회복되어,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거처에서 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은 죽어가는 인류가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되고, 불순종의 끔찍한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얻은 지식으로 죄에 대항할 힘을 갖춘 인류에 의해 온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죽은 자와 죽어가는 인류를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사업은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를 “회복의 때”라고 칭했는데, 그는

과학과 창조

이것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20, 21). 성경의 첫 몇 장이 인류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필수적인 사실들을 밝히고 있듯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지구를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분의 회복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구에 관한 많은 핵심 사실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때, 성경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한 것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3,000년 전 성경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땅의 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22

인도의 고대 현자들은 지구가 거북이 위에 서 있는 코끼리의 등에 지탱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지혜로 유명했지만, 그들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이론은 지구가 아틀라스의 등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이 사실이 밝혀지기 훨씬 전에 이미 이 점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 욥은 창조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북쪽을 허공 위에 펴시고, 땅을 허공에 매달아 두셨도다.” 욥기 26:7

땅의 기초

창조주께서는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분별력이 있다면 말하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다시 “그 기초를 무엇이 지탱하며, 누가 그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욥기 38:4, 6)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확립된 지질학적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질문들은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확한 특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의 고향인 지구에는 ‘기초’가 있으며, 이는 지구 중심부의 핵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는 단단한 니켈-철 물질 덩어리 위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퉁이 돌”은 피라미드의 ‘주 모퉁이 돌’과 다소 비슷하지만,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구의 전체 무게가 그 중심 핵을 향해 아래로 누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형성』(『현대 지식 백과사전』, 192, 193쪽)에서 J. W. 그레고리 교수는 지구의 상부 지각을 지탱하는 일곱 개의 거대한 기초 지대를 언급합니다. 이들은 북미와

과학과 창조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에 있으며, 유럽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다는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무거운 현무암층에 의해 견고하게 지탱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대륙에 대한 추가적인 지지대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창조주에 대해 “그가 세상을 그 기초 위에 세우사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한 것도 당연합니다. 시편 104:5

치수

하나님께서서는 욥에게 지구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가 알면, 누가 그 치수를 정하였느냐? 누가 그 위에 줄을 폈느냐?”(욥기 38:5). 치수는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할 때 필수적입니다. 건물 자체가 적절한 비율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치수는 주변의 사물 및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구의 설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건축가께서는 그분의 설계 목적에 모든 면에서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구의 지름은 약 8,000마일입니다. 이 치수의 중요성은 달의 작은

크기와 목성, 토성의 훨씬 더 큰 크기와 비교해 볼 때 비로소 제대로 인식됩니다.

지구의 대양은 지구가 뜨거운 덩어리였던 초기 형성 단계에서 방출된 수증기의 결과로 생겨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구의 지름은 표면적에 비례하여 이 수증기의 양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반면 달의 경우, 크기가 훨씬 작아 가스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달이 식으면서 완전히 말라버렸고, 그 결과 달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과학자들은 목성과 토성 크기의 행성들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방출했기 때문에, 그 육지 부분은 깊은 물이나 얼음 아래 완전히 잠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려면 적절한 크기를 가져야 했으며, 신성한 설계자는 그 크기가 얼마여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지구가 적절히 따뜻해지되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태양과의 거리도 딱 알맞아야 했습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9,300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태양이 1억 2천만 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면, 우리 모두는 얼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태양이 지구에서 6천만

과학과 창조

마일 이내로 다가온다면, 우리 모두는 불타 죽을 것이며, 심지어 식물조차도 그 열기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창조주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들—“네가 알면, 누가 그 측량을 정했느냐? 누가 그 위에 줄을 폈느냐?”—는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수다나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이 놀라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과정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이루셨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한때 지구의 표면이 뜨겁고 녹아내린 덩어리였으며, 그 후 서서히 식어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말해, 성경은 지구가 “형체도 없고 텅 비어 있었다”, 즉 형태가 없었다고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창세기 1:2). 창세기 1장은 지구가 아직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했던 바로 이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창조 기록은 지구를 현재의 거주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의 여섯 단계, 즉 여섯 날 또는 여섯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조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질서 정연한 발전 과정을 발견했으며, 비록 창세기와 똑같은 수의 시간 구분을 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발전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발견은 창세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과학자들은 네 가지 주요 시대를 제시하며, 이를 더 짧은 시기로 세분화한다.

과학자들이 정한 기간과 창세기의 “날” 사이의 일치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구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과정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짧은 31절에 불과한 반면, 과학자들은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을 저술해 왔습니다. 여섯 가지의 일반적인 구분은 창조주께서 경건한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신 전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날

첫 번째 “날”의 시작에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이 “물 위에 감돌고 계셨다.” (창세기 1:2). 여기서 “움직이시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새가 둥지 위에서 알을 품듯이 ‘알을 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알을 품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아 둥지를 짓고, 그 안을 풀이나 다른 부드러운 재료로 채운 다음, 마지막으로 새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드러운 솜털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알을 낳고,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는 창조주의 영, 즉 능력이 지구의 물 위에 맴돌며, 결국 그분이 지구를 위해 염두에 두신 무수한 피조물들, 특히 인간을 위한 거처가 마련되도록 하신 과정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 맴돌림은 “어둠이 깊은 물의 표면에 덮여 있었을” 때인 첫째 날의 시작에 시작되어, 여섯째 “날”이 끝날 무렵에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1:2, 27-31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감돌기 시작했을 때 “어둠이 깊은 물의 표면에 덮여 있었다.” 이는 땅과 물이 분리되기 전이었으므로, 지구의 표면은 광활한 바다 하나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다. “바다를 문으로 막아 둔 자가 누구냐? 마치 태에서 나온 것처럼 터져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삼고 짙은 어둠을 그 포대기로 삼았을 때 말이나?” 욥기 38:8, 9

하나님의 이 질문은 바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암시해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질량이 식으면서 외부에 단단한 지각이 형성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동안 이 지각은 뜨거운 가스를 가두어 두었으며, 또는 하나님의 질문이 시사하듯이 “문으로 가두어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갇힌 가스는 엄청난 압력을 쌓아올려 지표면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작은 분화구를 통해 “터져 나와” 식고 응축된 뒤, 뜨거운 지표면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는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자궁에서 나오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명령으로 인해 “빛이 있었다.”(창세기 1:3). 과학자들은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먼저 창조되었으며, 비록 나중에

그랬던 것만큼의 밝기로 지구를 둘러싼 수증기와 가스의 구름을 뚫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창조주의 명령에서 언급된 빛이 태양이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창세기 1:4, 5: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어둠과 빛을 나눈 것은 바로 지구 그 자체였다. 태양을 향한 지구의 한쪽 면은 지구 반대편의 어둠에 비해 밝았을 것이다.

24시간이 아니었다

태양의 빛이 지구를 둘러싼 짙은 수증기 층을 희미하게 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감싸고 계셨던 첫 번째 시기가 끝이 났다. 기록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창세기 1:5). 어떤 이들은 이 문장에서 사용된 “날”이라는 단어에 의해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요옴(yowm)”을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12시간 또는 24시간의 문자적인 하루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서의 저자들은 그 용법을 그렇게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10, 레위기 25:29, 민수기 9:22 및 다른 구절들에서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는 ‘ ’로 번역되어 ‘년’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0:4와 여호수아기 24:7에서는 ‘계절’로 번역됩니다. 창세기 4:3과 26:8, 그리고 다른 많은 구절에서 “yowm”은 “시간”으로 번역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24시간의 하루로만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성경은 종종 “날”이라는 단어를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기간은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로 언급됩니다. (시편 95:8). 이사야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시대를 “날”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사야 11:10). 또한 창세기 2:4에서는 창조의 전체 기간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요옴(yowm)’은 단순히 특정 사건이 일어나거나 특정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시기, 또는 시대를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여기서 “저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황혼” 또는 “어둠”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바는, 각 창조 기간이 어둡고 희미한 시작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시대의 일이 완성될 때면 밝은 아침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날”이 어둠 속에서 시작되어 “빛이 있으라”는 신성한 명령으로 끝났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둘째 날

두 번째 창조 기간 동안 지구의 대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한 궁창[확장]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 (창세기 1:6). 이 “확장”에 의한 물의 분리는, 주된 물의 덩어리는 지상에 남아 있는 반면,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대기 중에 떠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뜨거운 지구에서 나온 나머지 기체들—그 중 상당 부분은 응축되어 끓는 물의 바다를 형성했으나—이 이제 대기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기체들은 나중에 창조될 지상의 수많은 호흡하는 생물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신성한 지혜에 의해 조절되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거할 장막처럼 펼치시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이사야 40:22). 지구를 둘러싼 광활한 대기를 묘사한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대기가 모든 호흡하는 생물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순환 체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태양은 바다의 물을 수증기로 바꾸고, 이 수증기는 대기로 올라가 비나 눈으로 지상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하는가? 누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연한 풀이 싹트게 하려고 비를 보내는가? 비에게 아버지가 있는가? 누가 이슬을 낳는가?” 욥기 38:26-29

대기권에는 수십억 톤의 물이 떠다니며, 언제든지 땅 위에 “뿌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관개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성한 건축가의 지혜를 얼마나 잘 드러내 주는지요! 그리고 그 설명은

얼마나 간결한지요 —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창세기 1:7, 8). 여기서 “하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공기”로 번역되기도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공”을 공기라고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할 것입니다.

지구 대기의 형성이 완료되면서 그 시대는 막을 내렸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창세기 1:8

셋째 날

세 번째 “날” 또는 시대에 지구의 육지 표면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또는 공기]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9,10

잠언 8:29은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물이 그 명령을 넘지 못하도록 바다에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모든 대륙 지고를 평평하게 깎아내면,

지구의 전체 육지 표면이 해수면 아래 1~2마일 깊이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아하니, 이것이 창조의 셋째 날 이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한 명령에 따라, 그리고 신성한 권능의 통제 아래, 당시 아직 다소 연약했던 지각이 휘어지기 시작하여 해저가 깊어지고 대륙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욥기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이곳까지 오고 더 이상은 나아가지 말라. 여기에서 네 거만한 파도들은 멈춰야 한다!”(욥기 38:10, 11)

“주께서 그들이 넘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셨으니, [원래 바다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4:9). 또한, 창조의 세 번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각기 그 종류대로, 그 씨가 자기 안에 있는 대로 땅 위에 내라. 그리 되었더라.” (창세기 1:11). 이처럼 식물의 가장 초기의 형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중에 문자 그대로의 풀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더 일반적인 형태의 연약한 식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를 “식물”로 번역한다.

세 번째 창조 시대는 과학자들이 석탄기(Carboniferous)와 페름기 초기(early Permian)로 묘사하는 시기를 아우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실로 숲을 이루며 무성하게 자라난 식생들이 지구의 석탄 매장층을 형성하는 원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의 심오한 의미를 되새겨 보자. 이는 주님께서 모든 생명체의 종이 고정되어 있으며,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각 종에는 많은 변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미나 개에도 많은 변종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장미이자 개이다. 다윈 자신도 『종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훈련된 관찰자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 알려진 고등 식물 생명체에 관해, 다윈 씨는 조지프 후커 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근 지질학적 시기 동안 모든 고등 식물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한, 참으로 끔찍한 수수께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물의 진화』, 42쪽, D. H. 스콧 박사, 문학석사, 법학박사). 이것이 다윈에게 “끔찍한”

수수께끼였던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그의 진화론을 부정했기 때문이었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아직 진화론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석에서 발견된 지질학적 기록에 관해서는 가장 낮은 형태의 식물과 동물 생명체부터 가장 높은 형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웰스, 헉슬리, 다나 등 저명한 과학자들도 기꺼이 인정하듯이, 수많은 “누락된 고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급격한 전환”과 “불연속성”을 언급하며,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시사한다.

웰스와 헉슬리는 이러한 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순전히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설적”이며 “추측적”임을 인정하면서도 “가교”를 만들려 했다.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추측에 기반한 연결 고리가 적어도 500 백만 년에 달하는 시간의 간극을 메우고 있다고 추정한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이 저명한 학자들의 저서를 읽는 일반 독자들이 그들이 암석 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립한 내용과 추측에 기반한 연결 고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 교수 E. 페리에(E. Perrier)의 저서 『역사 이전의 지구(The Earth Before History)』 75쪽에 실린 인용문을 통해 이러한 생각들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토록 많은 유기체 형태가 비교적 갑작스럽게 출현한 사실은 때때로 진화론에 반하는 증거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바로 앞 지층에 보존되어 있던 오래된 동식물이 완전히 사라진 후, 어떤 지질층에서 새로운 동식물이 갑자기 나타난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 페리에가 지적했듯이, 이는 “독립적인 창조를 지지하는 반박할 수 없는 논거로 여겨져 왔다.”

넷째 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 별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또 그것들이 표징과 절기와 날과 해를 정하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빛을 지으셨으니,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별들도 지으셨다.” 창세기 1:14-16

이 기록을 대충 읽는 사람은 이 시기에 해와 달이 창조되었다는 인상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와 달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1:1

여기서 “만드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와 용법을 가지고 있다. 시편 104:19에서는 “정하셨다”로 번역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달을 절기를 정하도록 정하셨으니, 해는 자기의 지는 때를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행하신 일은 해와 달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표징과 절기와 날과 해를 정하는 데” 쓰이도록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창조 시기에 지구를 둘러싼 어둠의 포장을 희미하게 뚫고 들어온 것은 바로 태양의 빛이었습니다.

분명히 제4 창조 “날” 이전에 일부 햇빛이 지구에 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 창조 시기에 자라난 식물들이 그 빛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과 달은

당시 계절을 만들어내는 의미에서 “다스리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우리의 석탄층을 형성하기 위해 퇴적된 거대한 나무들이 성장 연도를 나타내는 연륜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다섯째 날

다섯 번째 시대는 해양 생물과 “땅 위를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는 데 전념했습니다(창세기 1:20).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고래와 물에서 그 종류대로 풍성하게 낳은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창조하셨다고 읽습니니다(창세기 1:21).

성경은 “고래” 대신 “바다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롱 성경 사전(Strong's Concordance)에 따르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육지 괴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21은 아마도 과학자들이 공룡(Dinosaurs), 디플로도쿠스(Diplodocus), 티라노사우루스(Tyrannosaurus)와 같은 이름을 붙인, 즉 거대한 도마뱀을 의미하는 그 거대한 동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괴물들이 육지에서도 살 수 있었지만, 엄청난 체중 때문에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물이 그들의 체중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창세기 1:21)라는 표현은 깃털이 있는 새들로만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시기에 깃털이 없으면서도 날개가 있는 거대한 생물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날개 구조는 박쥐의 날개와 다소 유사했다고 밝혀냈습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도마뱀이든, 오로지 바다에서만 살았던 생물들이든, 아니면 공중을 나는 깃털이 있는 새나 없는 새들이든, 각 종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이는 지질학자들에 의해 확인되는데, 그들은 “바위의 책”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각 종이 진화의 사다리를 올라간 흔적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다.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적절하게도,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육지 동물들도 바로 이 시기에 창조되었습니다.

식물은 제3 “날”에 나타났으나, 새로운 식물 종들은 계속해서 등장했으며, 꽃피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들은 제6 날에 창조되었다. 지질학자들은 꽃피는 식물과 나무()가 등장함과 동시에 꿀벌도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수분을 위해 꿀벌과 다른 곤충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이들이 적절한 먹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곤충들의 먹이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자연스럽게 꽃피는 식물과 나무들의 번식 과정을 돕는 데 기여하도록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는 인간이었습니다. 창조의 설계자께서는 인간을 위해 땅과 그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에 관한 진리를 펼쳐 보이며, 성서의 저자는 마치 무대 뒤편으로 우리를 안내하듯,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가축과 온 땅, 그리고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지난 5일 동안 신성한 권능의 ‘숙고’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의 위대한 목적이 이제 곧 실현될 것임을 알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버지와 아드님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의 창조 작업이 아무리 놀라웠더라도, 지상의 왕으로 임명될 수 있는 창조주를 대표할 만한 적합한 존재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창세기 1:27). 이 간결한 사실에 대한 설명은 제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며, 여자가 창조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게 됩니다. 남자에 관해 기록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영이 되었더라.” 창세기 2:7

여기에는 인체 해부학과 관련된 두 가지 과학적 진리가 제시되어 있다: (1) 인간의 신체는 땅에 본래 존재하는 화학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인간은 폐로 들이마시는 산소 덕분에 살아간다. 레위기 17:11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폐로 흡입된 산소가 혈액을 통해 신체의 모든 부위로 운반되어, 그로 인해 신체가 살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를 발견하기 훨씬 전에 성경에 이러한 지식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 있는 영은 살아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4절에서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살아 있는 피조물”로 번역되어 하등 동물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번역의 일관성 부족은 번역자들이 “불멸의 영혼” 전통을 고수하고자 했던 의도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인간에게 해부학적 구조 어딘가에 숨겨진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불꽃이 있으며, 육체가 죽을 때 이 불꽃이 빠져나와 죽음을 극복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살아 있는 영”이라는 표현이 “불멸의 영” 전통을 전혀 암시하지는 않지만, 번역자들은 하등 동물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살아 있는 피조물”이라는 표현보다 이 표현이 더 듣기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두 경우 모두에서 “살아 있는 영혼”이나 “살아 있는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중세 시대의 일부 성경 번역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불멸의 영혼” 전통이 성경에서 전혀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전도서 3:19-21에 명시된 단순한 진리를 더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숨을 쉬며, “이쪽이 죽으면 저쪽도 죽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 베푸신 사랑스러운 돌보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 에덴에 동산을 심으시고, 그곳에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눈에 보기 좋고 먹을 만한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셨으며,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도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삶의 더 높은 가치를 감상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완전하며, 따라서 올바른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답지만, 창세기 첫 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하등 동물들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름다움이 강조되며, 심지어 식량 필요성보다도 우선시됩니다. 사람은 단지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되었기에, 창조주께서는 에덴 동산에 “눈에 즐거운” 나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유혹과 불순종

아담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땅의 왕이 될 운명이었기에, 자신의 통치 영역을 익힐 기회가 주어졌다. 그에게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책임이 주어졌다 (창세기 2:19, 20).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담에게 적합한 동반자, 즉 “도움의 배필”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18, 21-25

하와가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 그녀에게 다가와, 죄의 대가로 죽음이 따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하와에게 말하며,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신과 같이 될 것을 아신다”고 덧붙였다. 창세기 3:1-5

하나님께서서는 무한한 지혜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아셨으나, 그들의 자유 의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것을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인류가 선과 악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경고하신 대로, 아담의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초래했고, 이는 유전적으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는 많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류는 창조주의 법을 어길 때 닥치는 끔찍한 결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 피조물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슬픔을 주시더라도, 자비를 베푸시리니... 그분은 기꺼이... 인류를 괴롭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예레미야 애가 3:32, 33)

하나님께서서는 인간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구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21, 22

인류를 지상에서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9:28; 요한계시록 20:6

새로운 창조

한편,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부터 또 다른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새 창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고린도후서 5:17). 예수님 자신도 신성한 생명 차원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그분의 참된 제자들은 자신들도 그분과 함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으로 높이 들려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2, 3; 17:24; 요한계시록 3:21; 베드로후서 1:4

“의의 태양”이 떠오름으로써 새로운 날이 열릴 것입니다. (말라기 4:2). 의의 태양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일으켜져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4,5). 이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의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3:43

한편, 인간은 순종의 이점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 악을 경험함으로써 얻은 지식을 무기로 삼아,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당시 시행되는 왕국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인간의 완전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왕인 인간은 창조주의 얼굴이 비추는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하며, 평화와 건강,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